

#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tres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박소영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문혁준

Major of Child & Famil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 : Park, So Young*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 Ju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identify how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grades, birth order, self-consciousness), parents(age,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of mothe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ontext (private tutoring status, living area) relate to children's stress and secondly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children's str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40(453 boys, 440 girls) children from grades 4 to 6 who were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Buchun.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Girls get stressed easier than boys in terms of being treated distantly by their friends. (2) The study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their self-consciousness such as general self-consciousness, learning self-consciousness and total self-consciousness. (3) While the result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mothers' acceptable behavior, the study reveal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the mother's over protective behavior which in turn raised the children's stress level. (4) In 'total stress', it was recognized that boys were affected mostly by grades in the children's variables category, while girls were affected by their general self-

consciousness. In addition, both girls and boys were affected mostly by acceptable-refusal parental behavior in the parental variables category, and further affected by the living area in the category of conditional variables.

주제어(Key Words): 스트레스(stress), 자아개념(self-consciousnes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 1. 서 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누구나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산업사회에서 변화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은 매우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혹은 학문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같은 사건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건도 비슷하게 인지하여 유사한 스트레스로 지각할 수 있다. 개인마다 어떤 사건을 스트레스로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개념인 동시에 가장 파악하기 힘든 개념 중의 하나이다(Garmezy & Rutter, 198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성인들만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들 또한 성인들 못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이소은, 1990; Compas & Wagner, 1990).

아동기는 가정이나 이웃, 또래에 한정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며 규율적인 생활의 요구와 다양한 사회적 적응,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의 압력 등으로 사회·정서적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더욱이 현대의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에게 기대와 요구가 많아져 아동들이 미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여러 방면에서 고도의 성취를 해야 하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1984). 그러나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둔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몇 편이 발표되고 있다(송의열, 1995; 신은영, 1998; 오명희, 1994; 윤유경, 1990; 이정미, 1996; 정승희, 정영숙, 1996; 천민필, 1993;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의 사망이나 이혼, 부모로부터의 확대 등의 '중대한 생애 사건(major life event)' (Barton & Zeanah, 1990) 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 즉, 부모님께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며 꾸중 듣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친구가 놀리는 것 등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Parfenoff & Jose, 1989)와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흔히 경험하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선행연구(Dohrenwend, Dodson, & Shrout, 1984;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4; 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Johnson & Rornstein, 1991; Waters, Rubman, & Hurry, 1993)에서도 문제행동의 많은 부분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 그리고 Belsky(1984)의 부모 양육 행동의 복합적 요인에 관한 모델을 기본 틀로 하여 크게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문혁준, 1998, 재인용). 그 중 아동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출생 순위, 자아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Brown과 동료들(1986), Elder, Caspi(1988), Yamamoto(1979)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느낀다고 하였으나 Burts와 동료들(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Rutter(1979)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일정한 스트레스 자극에 더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남·여 아동의 취약 부분이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Rutter, 1986).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인들과 아동의 스트레스 관계나 영향력이 다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Maccoby, 1990; Parker & Asher, 1993; Richards, Gitelson,

Peterson, & Hurting, 1991; Rubin, 1982).

학년이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김길임, 심희옥(2002)은 학업과 교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고학년 시기에 많이 경험하고,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저학년 시기에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Elkind(1981), 이지연(2002)의 연구에서도 고학년이 다른 저학년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출생순위와 아동의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황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외동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지연(2002)은 중간 아동이 첫째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민필(1993)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가 첫째 아동이 막내인 아동보다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변인의 자아개념에 비추어 아동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열등한 자아개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Daniel & George, 1975),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들은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아동들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1998).

부모변인에서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이 비일관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Arlene과 동료들(1982) 또한 Cleaver(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적절할 때 부모역할에 더 큰 만족감을 느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영미(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점수가 높았고, 반면에 천민필(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과잉기대를 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 또한 김인숙(1992)과 Elkind(1981)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더 높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의 아동이 학업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성이나 전반적인 행동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다(Banez & Compas, 1990; Maccoby, 1980; Sears, 1965).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경우, 자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김희정, 1990; 박영애, 1995; 임선화, 1988) 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로움이나 문제행동 또는 심리적 우울감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한미현, 1995). 즉, 부모의 낮은 지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누적적 스트레스의 주요 유발원인을 함의하는 것이다(민하영, 유안진, 1999).

상황변인에서는 과외유무, 지역차이 등이 연구되어 왔는데, 엄선희(1999)의 연구에서 학원과 학습지를 하고 있는 아동들이 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 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송의열(1995) 또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과잉 과외지도로 인하여 아동들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악, 은평, 강남구의 초등학교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총 86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는 97.8%가 과외를 하며, 이 중에서 61.6%가 개인과외를 받는데 그 중의 29.2%는 4개 이상「무더기 과외」를 받고 있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하여, 강남지역 아동들은 더욱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었다(경향신문, 2004년 1월 26일자).

종합해 보면, 최근 들어 아동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윤유경, 1990; 천민필, 1993; 최성윤, 1992; 한미현, 1996)는 행해지고 있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며,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 또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변인(학년, 출생순위, 자아개념),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황변인(과외유무, 지역차이)이 남·여 아동 각각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학부모, 부모교육관계자 그리고 아동관련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제공해 주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변인의 자아개념은 아동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변인의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부모·상황 변인이 아동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4-1 아동·부모·상황 변인이 남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4-2 아동·부모·상황 변인이 여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940명이다. 연구의 특성상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내 상류층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과 경기도 부천시내 하류층 지역에 위치한 1곳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초등학교에 연구 협조를 의뢰한 뒤,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한 940명의 아동들 중 응답 문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이중 기재되어 있는 47명을 제외하고 총 893명이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 시기에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고르게 분포되도록 유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남아가 453명(50.7%), 여아가 440명(49.3%)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281명(31.5%), 5학년이 289명(31.4%), 6학년이 323명(36.2%)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아가 107명(12.0%), 첫째아가 313명(35.0%), 둘째이상의 아동이 473명(53.0%)으로 둘째이상의 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첫째아, 외동아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아동 부모의 인구학적인 배경은 <표 2>와 같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41~45세가 495명(55.4%), 어머니의 경우 40세 이하가 526명(58.9%)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 248명(27.8%), 전문대 졸업이하가 514명(57.5%), 대학교 졸업이상 131명(14.7%)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 339명(38.0%), 전문대 졸업이하가 487명(54.5%), 대학교 졸업이상 67명(7.5%)으로 연구대상 아동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전문대 졸업 이상이 과반수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505명(56.6%), 무직·전업주부가 388명(43.4%)으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893)

변 인		남 아 n=453 (50.7%)	여 아 n=440 (49.3%)	계	$\chi^2$
학 년	4학년	156(34.4)	125(28.4)	281(31.4)	4.62
	5학년	146(32.2)	143(32.5)	289(32.4)	
	6학년	151(33.4)	172(39.1)	323(36.2)	
출생순위	외동아	60(13.2)	47(10.7)	107(12.0)	4.71*
	첫 째	144(31.8)	169(38.4)	313(35.0)	
	둘째이상	249(55.0)	224(50.9)	473(53.0)	

<표 2> 연구대상 아동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

(N=893)

변인		남아 n=453 (%)	여아 n=440 (%)	계	$\chi^2$
부 연령	40세 이하	115(25.4)	111(25.2)	226(25.3)	.15
	41~45세 이하	253(55.8)	242(55.0)	495(55.4)	
	50세 이상	85(18.8)	87(19.8)	172(19.3)	
모 연령	40세 이하	265(58.5)	261(59.3)	526(58.9)	.18
	41~45세 이하	165(36.4)	155(35.2)	320(35.8)	
	50세 이상	23( 5.1)	24( 5.5)	47( 5.3)	
부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이하	126(27.8)	121(27.7)	248(27.8)	2.11
	전문대 졸업이하	268(59.2)	246(55.9)	514(57.5)	
	대학교 졸업이상	59(13.0)	72(16.4)	131(14.7)	
모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이하	181(40.0)	158(35.9)	339(38.0)	2.12*
	전문대 졸업이하	244(53.0)	443(55.2)	487(54.5)	
	대학교 졸업이상	28( 6.2)	39( 8.9)	67( 7.5)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모	267(58.9)	238(54.1)	505(56.6)	2.14*
	전업주부	186(41.1)	202(45.9)	388(43.4)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모두 아동이 지각한 것으로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질문지,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자아개념 질문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양육행동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 1) 아동의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20문항, '친구관련 스트레스 I(소외감)' 10문항, '학업관련 스트레스' 8문항, '친구관련 스트레스 II(위협감)' 7문항, '교사관련 스트레스' 3문항의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받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많이 받음'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전체 48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5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91, '친구관련 스트레스 I(소외감)' .91, '학업관련 스트레스' .85, '친구관련 스트레스 II(위협감)' .84, 마지막으로 '교사관련 스트레스'가 .80이었다.

### 2)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1985)에서 개발한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일반적 자아개념 15문항, 학습에 대한 자아개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의 자아개념의 전체 30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0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는 일반자아가 .73, 학습자아는 .91이었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수용-거부'의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박성연, 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도구'에서 '과보호'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 양육행동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는 '수용-거부' .84, '과보호'가 .66이었다.

### 3. 자료분석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1.0을 사용했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로 구하였고,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변인, 부모변인, 상황변인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른 아동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친구관련 I(소외감)' ( $t=-1.53,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여아( $M=1.89$ )가 남아( $M=1.80$ )에 비하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 스트레스 (N=893)

아동의 스트레스	남(n=453)		여(n=440)		t
	M	SD	M	SD	
부모관련	2.11	.74	2.17	.77	-1.05
친구관련 I(소외감)	1.80	.81	1.89	.92	-1.53**
학업관련	2.41	.96	2.59	.96	-2.72
친구관련 II(위협감)	2.26	.97	2.18	.98	1.14
교사관련	1.93	1.10	1.91	1.08	.37
총 점	2.11	.68	2.16	.72	-1.22

\*\*p<.01

<표 4> 자아개념과 아동 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

(N=893)

아동의 스트레스	일반 자아		학습자아		총자아	
	남(n=453)	여(n=440)	남(n=453)	여(n=440)	남(n=453)	여(n=440)
부모관련	-.22***	-.35***	-.14***	-.24***	-.20***	-.32***
친구관련 I(소외감)	-.22***	-.38***	-.19***	-.19***	-.23***	-.30***
학업관련	-.27***	-.33***	-.24***	-.31***	-.28***	-.36***
친구관련 II(위협감)	-.21***	-.34***	-.12**	-.19***	-.18***	-.28***
교사관련	-.14**	-.24***	-.09	-.12*	-.12**	-.19***
총 점	-.28***	-.42***	-.20***	-.28***	-.26***	-.37***

\*p<.05, \*\*p<.01, \*\*\*p<.001

### 2.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변인의 자아개념은 아동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동의 자아개념과 아동의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남·여 아동 별로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아동의 자아개념과 아동의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먼저 남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자아와 스트레스는 '부모관련' ( $r=-.22, p<.001$ ), '친구관련 I(소외감)' ( $r=-.22, p<.001$ ), '학업관련' ( $r=-.27, p<.001$ ), '친구관련 II(위협감)' ( $r=-.21, p<.001$ ), '교사관련' ( $r=-.14, p<.01$ ), '스트레스 총점' ( $r=-.28, p<.001$ ) 모두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습자아와 스트레스는 '부모관련' ( $r=-.14, p<.001$ ), '친구관련 I(소외감)' ( $r=-.19, p<.001$ ), '학업관련' ( $r=-.24, p<.001$ ), '친구관련 II(위협감)' ( $r=-.12, p<.01$ ), '스트레스 총점' ( $r=-.20, p<.001$ )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자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 $r=-.20, p<.001$ ), '친구관련 I(소외감)' ( $r=-.23, p<.001$ ), '학업관련' ( $r=-.28, p<.001$ ), '친구관련 II(위협감)' ( $r=-.18, p<.001$ ), '교사관련' ( $r=-.12, p<.01$ ), '스트레스 총점' ( $r=-.26, p<.001$ )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남아의 경우 일반자아, 학습자아, 총자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자아와 스트레스는 하위영역인 '부모관련', '친구관련 I(소외감)', '학업관련', '친구관련 II(위협감)', '교사관련', '스트레스 총점' ( $r=-.28, p<.001$ )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레스 총점 ( $r=-.24\sim-.42, p<.001$ )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한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습자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 $r=-.24, p<.001$ ), '친구관련 I(소외감)' ( $r=-.19, p<.001$ ), '학업관련' ( $r=-.31, p<.001$ ), '친구관련 II(위협감)' ( $r=-.19, p<.001$ ), '교사관련' ( $r=-.12, p<.05$ ), '스트레스 총점' ( $r=-.28, p<.001$ )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총자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친구관련 I(소외감)', '학업관련', '친구관련 II(위협감)', '교사관련' 그리고 '스트레스총점' ( $r=-.19\sim-.37, p<.001$ )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에도 일반자아, 학습자아, 총자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변인의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남·여 아동별로 산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먼저 남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용-거부적 양육행동과 스트레스는 '부모관련' ( $r=-.39, p<.001$ ), '친구관련 I(소외감)' ( $r=-.25, p<.001$ ), '학업관련' ( $r=-.22, p<.001$ ), '친구관련 II(위협감)' ( $r=-.12, p<.05$ ), '스트레스 총점' ( $r=-.32, p<.001$ )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 스트레스간의 상관계수 (N=893)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수용-거부		과보호	
	남(N=453)	여(N=440)	남(N=453)	여(N=440)
부모관련	-.39***	-.47***	.11*	.12**
친구관련 I(소외감)	-.25***	-.29***	.07	.14**
학업관련	-.22***	-.26***	.09	.10*
친구관련 II(위협감)	-.12*	-.16***	.11*	.17***
교사관련	-.06	-.24***	.12*	.04
총 점	-.32***	-.40***	.12*	.15**

\*p<.05, \*\*p<.01, \*\*\*p<.001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 $r=.11, p<.05$ ), '친구관련 II(위협감)' ( $r=.11, p<.05$ ), '교사관련' ( $r=.12, p<.05$ ), '스트레스 총점' ( $r=.12, p<.05$ )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반면에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용-거부적 양육행동과 스트레스는 '부모관련', '친구관련 I(소외감)', '학업관련', '친구관련 II(위협감)', '교사관련', '스트레스 총점' ( $r=-.16\sim-.47, p<.001$ )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 $r=.12, p<.01$ ), '친구관련 I(소외감)' ( $r=.14, p<.01$ ), '학업관련' ( $r=.10, p<.05$ ), '친구관련 II(위협감)' ( $r=.17, p<.001$ ), '스트레스 총점' ( $r=.15, p<.01$ )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부모·상황 변인이 아동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1) 아동·부모·상황 변인이 남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동변인, 부모변인, 상황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즉, 독립변인들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하위변인과 스트레스 총점을 종속변수로 삼고 아동변인(학년, 출생순위, 자아개념),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황변인(과외유무, 지역차이)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남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N=453)

독립변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부모관련	친구관련 I (소외감)	학업관련	친구관련 II (위협감)	교사관련	총 스트레스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학 년	.16***	.06	.26***	.10*	.15**	.17***	
출생순위	-.02	-.15***	.03	.04	.01	-.03	
자아 개념	일반자아	-.09	-.12*	-.15**	-.20***	-.13*	-.16**
	학습자아	.05	-.06	-.10	-.00	-.02	-.02
父 연령	-.04	-.07	-.07	-.12*	-.14*	-.09	
母 연령	.07	.14*	.00	.03	.09	.08	
父 교육수준	.02	.03	.05	-.02	-.05	.02	
母 교육수준	.01	-.00	-.02	.06	-.01	.01	
취업유무(母) <sup>1)</sup>	-.08	-.05	-.04	-.12*	-.12*	-.10*	
양육 태도	수용-거부	-.38***	-.17***	-.13**	-.05	.01	-.25***
	과보호	.19***	.12*	.14**	.13**	.09	.18***
과외유무 <sup>2)</sup>	-.01	.04	-.01	-.05	-.03	-.01	
지역차이 <sup>3)</sup>	-.18***	-.14*	-.16**	-.04	-.31***	-.19***	
상 수	2.74***	2.34***	3.85***	3.99***	3.16***	3.05***	
R <sup>2</sup>	.27	.15	.21	.10	.14	.25	
F	12.25***	6.10***	8.91***	3.87***	5.57***	11.26***	

\*p&lt;.05, \*\*p&lt;.01, \*\*\*p&lt;.001

1) 취업=0, 비취업=1 2) 有=0, 無=1 3) 강남=0, 부천=1

〈표 7〉 여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N=440)

독립변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부모관련	친구관련 I (소외감)	학업관련	친구관련 II (위협감)	교사관련	총 스트레스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학 년	.21***	-.03	.23***	.05	.08	.15***	
출생순위	-.03	-.09*	-.09*	-.07	-.00	-.08	
자아 개념	일반자아	-.14**	-.35***	-.15**	-.32***	-.20***	-.27***
	학습자아	-.04	.03	-.20***	-.01	.06	-.05
父 연령	-.01	-.02	-.03	.02	.00	-.01	
母 연령	.01	.04	.04	.00	.01	.03	
父 교육수준	-.02	.09	.00	.05	-.04	.02	
母 교육수준	-.02	-.05	-.06	-.04	-.01	-.05	
취업유무(母) <sup>1)</sup>	-.06	-.00	-.07	-.01	-.00	-.04	
양육 태도	수용-거부	-.40***	-.16***	-.13**	-.02	-.17**	-.27***
	과보호	.21***	.15***	.17***	.18***	.07	.21***
과외유무 <sup>2)</sup>	-.04	.04	-.09*	.05	.06	-.01	
지역차이 <sup>3)</sup>	-.19***	-.22***	-.21***	-.12*	-.21***	-.23***	
상 수	3.68***	4.14***	4.24***	3.43***	3.51***	3.82***	
R <sup>2</sup>	.34	.25	.26	.17	.13	.33	
F	16.84***	10.70***	11.46***	6.53***	4.81***	16.44***	

\*p&lt;.05, \*\*p&lt;.01, \*\*\*p&lt;.001

1) 취업=0, 비취업=1 2) 有=0, 無=1 3) 강남=0, 부천=1



먼저 <표 6>에서 남아의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볼 때 아동변인에서는 학년( $\beta=.16,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38,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18, p<.001$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I(소외감)' 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출생순위( $\beta=-.15,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17,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14, p<.05$ )가 가장 높은 영향을 가진 변인이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아동변인에서는 학년( $\beta=.26, p<.001$ ), 부모변인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14, p<.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16, p<.01$ )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친구관련 II(위협감)' 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일반자아( $\beta=-.20, p<.001$ ), 부모변인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13, p<.01$ )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상황변인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교사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아동변인에서는 학년( $\beta=.15, p<.01$ ), 부모변인에서는 아버지 연령( $\beta=-.14, p<.05$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31, p<.001$ )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총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학년( $\beta=-.17,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25,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19, p<.001$ )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모관련' 27%, '친구관련 I(소외감)' 15%, '학업관련' 21%, '친구관련 II(위협감)' 10%, '교사관련' 14%, '스트레스 총점' 25%를 설명해 주었다.

2) 아동·부모·상황 변인이 여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표 7>에서 여아의 경우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볼 때 남아와 마찬가지로 아동변인에서는 학년( $\beta=.21,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40,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19, p<.001$ )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친구관련 I(소외감)' 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일반자아( $\beta=-.35,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16,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22, p<.001$ )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남아와 마찬가지로 아동변인에서는 학년( $\beta=.23, p<.001$ ), 부모변인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17,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21, p<.001$ )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친구관련 II(위협감)' 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일반자아( $\beta=-.32, p<.001$ ), 부모변인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18,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12, p<.05$ )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다. '교사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일반자아( $\beta=-.20,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17, p<.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21, p<.001$ )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총스트레스'의 경우 아동변인에서는 일반자아( $\beta=-.27, p<.001$ ), 부모변인에서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beta=-.27, p<.001$ ), 상황변인에서는 지역차이( $\beta=-.23, p<.001$ )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관련' 34%, '친구관련 I(소외감)' 25%, '학업관련' 26%, '친구관련 II(위협감)' 17%, '교사관련' 13%, '스트레스 총점' 33%의 설명력이 있었다. 즉, 여아의 스트레스는 '교사관련' 스트레스 영역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스트레스에서 남아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변인(학년, 출생순위, 자아개념),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양육행동), 상황변인(과외유무, 지역차이)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남·여 아동 각각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련 I(소외감)'에서 스트레스가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 여아의 스트레스가 남아의 스트레스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백경애, 1997; 이수연, 1985; 정현희, 2002; 한미현, 유안진, 1996)과 일치하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대인관계에서 더 민감하고 애착적(Perry & Bussey, 1984)이기 때문에 '친구관련 I(소외감)'에서 스트레스 더욱 많이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남·여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일반자아·학습자아·총자아 모두 낮아졌으며, 성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강중훈, 2000; 설남경, 2000; 이영숙, 1999; 이지연, 2002)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자아개념이 낮은(부정적인)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높은(긍정적인) 아동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Hendrick, 1985). 결국 아동의 스트레스는 자기지각의 향상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셋째, 남·여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부모관련', '친구관련 I(소외감)', '학습관련', 그리고 '친구관련 II(위협감)'와 '스트레스 총점'에서의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부모관련', '친구관련 II(위협감)', '교사관련', '스트레스 총점'에서의 스트레스가 같이 높아졌다.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스트레스 하위의 모든 영역과 '스트레스 총점'에서의 스트레스가 남아와 마찬가지로 낮아졌다. 그리고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남아와 비교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본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부모관련', '친구관련 I(소외감)', '학습관련', '친구관련 II(위협감)' 그리고 '스트레스 총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김희경, 1990; 오순환, 1991; Gecas & Schwalbe, 1986; Krech & Johnston, 1992; Litovsky & Dusek, 1985; Pianta & Egeland, 1990)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지각한 경

우, 자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즉, 부모가 통제적이거나 과보호적이며 권위적일 때 아동에게 부적절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스트레스 하위영역과 스트레스 총점에서 남·여 아동의 아동변인, 부모변인, 상황변인의 각 변인별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남·여 아동 모두 아동변인의 학년,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상황변인의 지역차이가 각각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이었고, 이러한 변인 중에서도 부모변인에서 수용-거부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즉,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이 남·여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 변인인 것이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이지 못한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로움이나 문제행동, 우울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도현심, 한미현(199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주요 유발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다.

'친구관련 I(소외감)' 스트레스에서 남아는 아동변인 중 출생순위, 여아는 일반자아였고,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상황변인의 지역차이는 남·여 아동 모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아는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그리고 여아는 아동변인의 일반자아가 가장 높은 설명력의 변인이었다. 즉, 남아의 경우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친구관련 I(소외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꼈고, 여아의 경우에는 학습에 관련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인 일반적 자아개념이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관련' 스트레스에서 남·여 아동 모두 아동변인의 학년, 부모변인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상황변인의

지역차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이었고, 이러한 변인 중에서도 아동변인의 학년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이는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에 비하여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학년의 차이가 가장 뚜렷함을 보여준 선행연구(김길임, 심희옥, 2002; 이지연, 2002; 천민필, 1993)와 일치하며, 아동변인에서의 학년이 남·여 아동의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친구관련 II(위협감)' 스트레스에서는 남·여 아동 모두 아동변인의 일반자아, 부모변인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상황변인의 지역차이는 여아만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 중에서도 남·여 모두 아동변인의 일반자아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여 아동 모두 '친구관련 II(위협감)' 스트레스에서 다른 변인에 비하여 일반자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었다.

'교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아동변인 중 남아의 경우 학년, 여아의 경우 일반자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부모변인에서는 남아는 아버지 연령, 여아는 수용-거부적 양육행동이었으며, 상황변인의 지역차이는 남·여 아동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중에서도 남·여 아동 모두 상황변인의 지역차이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즉, '교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남·여 아동에게 있어서 지역차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총스트레스'에서는 남아는 아동변인의 학년, 여아는 일반자아 그리고 남·여 아동 모두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 상황변인의 지역차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 중에서도 남아는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과 여아는 아동변인의 일반자아 또한 부모변인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아동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환경 변수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 부모 그리고 상황적인 맥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은 서울·경기 지

역의 초등학교 3곳의 아동들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아동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기 보고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올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사·친구의 지각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면접법 및 관찰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변인 탐색이 필요하며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 이외에도 매개변수를 찾아내어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관심은 아동변인, 부모변인, 상황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한 횡단연구이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스트레스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연구들과는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각각의 변인들의 관계로 단편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총체적인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교사·아동 상담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중훈(200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향신문, 2004년 1월 26일자.

-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길입,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 김인숙(1992).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스트레스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1998). 초등학교생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한미현(1995).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2.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민하영,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민하영, 유안진(1999).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경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남경(2000).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의열(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은영(1998).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희(1994).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1999).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 스트레스가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2).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와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희, 정영숙(1996). 초등학교생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전북대학교 논문집, 42, 237-243.
-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윤(1992).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85). 자아개념 및 가치관 확립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8). 한국의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9.
- 황영숙(1996). 초·중학생의 학업성적, 학업자아 개념 및 스트레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lene, S. R., Robert, B. B., Keith, T. G., Mark, T. G., & Nancy, M. R. (1982). Effect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27-634.
- Banez, G. A., & Compas, B. E. (1990). Children's and parents' daily stressful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591-605.
- Barton, M. L., & Zeanah, C. H. (1990). Stress in the pre-school years. In L. Arnold(Ed.), *Childhood Stress*. John Wiley & Sons, In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L. J. P., Cowen, E. L., Hightower, A. D., & Lotyczewski, B. S. (1986).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children in judging and experiencing specific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 339-346.
- Burts, D. C., Hart, H., Charlesworth, R., & Kirk, L.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 in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19.
- Cleaver, G. (1994). Mother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4, 35-51.
- Compas, B. E., & Wagner, B. M. (1990). Gender, instrumentality, and expression: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383-406.
- Daniel, A. G., & George, S. E. (1975). *Controlling stress & tension: A Holistic Approach*.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Dohrenwend, B. S., Dodson, M., & Shrout, P. E. (1984). Symptoms, hassles, social supports and life events: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20-230.
-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5.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ren: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N.Y: Addition-Wesley.
- Elkind, D. (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Addition-Wesley Publishing.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4).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armezy, N.,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Hendrick, J. (1985). *The Whole Child*. Saint Louis, C.V: Mosby Co.

- Johnson, J. G., & Rornstein, R. F. (1991). Does daily stress independently predict psych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58-74.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up 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rech, K. H., & Johnston, C. (1992). The relationship of depresse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Litovsky, V. G., & Dusek, J. B.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Psychology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367-410.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Parfenoff, S. H., & Jose, P. E. (1989). Measuring daily stress in childr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4 206*.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al Hall.
- Pianta, R. C., & Egeland, B. (1990). Life stress and parenting outcomes in a disadvantage sample: Results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proje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29-336.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on, A. C., & Hurtin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ubin, Z. (1982). *Children's friendship*.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Rutter, M. (1986). Maternal deprivation.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Sears, R. (1965). The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446-492.
- Waters, W. F., Rubman, S., & Hurry, M. J. (1993). The prediction of somatic complaints us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sponse Inventory(ANSRI) and the Daily Hassles Inventory(DSI).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2), 117-125.
- Yamamoto, K. (1979). Children's rating of the stressfulness of exper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81-582.

(2004년 10월 26일 접수, 2005년 7월 19일 채택)